

10월의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조용기 총재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2013년 10월 11일
‘2013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교회의
희망을 위한 기도대성회’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숙,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안희순, 오주봉, 오현주, 이형춘, 조종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사랑과 덮어주는 신앙”

유명한 소설 ‘레 미제라블’에 장발장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 장발장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형사 자베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군이 자베르를 잡았습니다. 장발장은 혁명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혁명군이 자베르를 총으로 쏘 죽이려고 할 때 장발장이 말렸습니다.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왜 당신은 나를 안 죽입니까? 당신이 제일 나를 미워해 나를 죽이고 싶어 할텐데 왜 안 죽였습니까?”라고 묻자 장발장은 “이 세상에 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땅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용서라는 마음은 하늘보다 더 넓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그 형사도 장발장의 용서에 무너지고 변화됐습니다.

한겨울의 얼음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녹아 내리고, 모질어진 마음은 사랑과 용서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채찍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봄이 오면 겨울은 물러가고 얼음이 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조지 허버트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빌리 제올리는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해서 죽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용서로 덮어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결점도 많을 뿐 아니라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점만 보고 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의 흠짐을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갖다 줍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을 갖다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성령축제 ‘제23차 세계오순절대회’

갈보리컨벤션센터 헌당예배도 함께 열려
조용기 목사 “세계교회의 희망은 성령운동” 피력



시작됐다.

전세계 오순절교회 최고 지도자이자 대회 주강사인 DCEM 조용기 총재 목사를 소개한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말레이시아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됐다”며 “조용기 목사님의 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가 오순절교회의 영성 강화를 돕고 성공적인 목회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강단에 선 조용기 목사는 “갈보리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본격적인 말씀을 전했다.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것을 강조한 조용기 목사는 “갈보리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줄 믿는다. 갈보리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는 교회, 복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에게 삶과 희망을 주시며 치료

하신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할 때 기뻐 하신다. 확실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전했다. 또한 “성령 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도록, 세계가 변화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갈보리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 기적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할 줄 믿는다”고 피력했다.

설교 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의 기도와 조용기 목사의 기도가 이어졌다.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와 성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조용기 목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예배에는 우리교회 관계자와 제자교회, 순복음선교사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여의도순복음중동교회에서 부채춤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성회에 앞서 갈보리컨벤션센터 제막식이 있었다. 갈보리교회 담임목사이자 세계오순절협의회회장인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는 “갈보리컨벤션센터 건축의 여정은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의지하는 여정이었다. 꿈과 비전을 주신 조용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10절>

우리는 그 광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께서 같이 하시므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 주시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찾아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음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쫓아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버려도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다가와

도 곤고가 다가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

‘거꾸러뜨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 걸머지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가져가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악한 마귀의 꾀계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셨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으나 사망권세를 모두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란 보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생명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장차 천국에 갈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총독의 사형선고를 받고 유대인들의 참소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알고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로마의 정부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손을 대거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시고, 스스로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가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과 허약함, 저주와 가난, 죽음과 음부를 대신 짚어지고 청산하기 위해 자원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1.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않음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아 놓은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은 보배중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다가와도 중국적으로 우리를 멸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그분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리스도 품에 안겨있는 우리들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험하고 심한 광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제23차 세계오순절대회 이모저모

세계 오순절 지도자에게 ‘희망’ 심어



○... DCEM 조용기 총재목사의 설교가 끝나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오순절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은혜의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갈보리교회 성도인 레이첼 텀스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신 것이 기적”이라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세계적인 주의 종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 돌린다”고 울먹였다. 가나에서 온 마이클 오프리목사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돌아간다”고 소감을 전했고 인도에서 온 디모테 샤말라목사는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 기뻐다.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대로 희망을 마음에 심었다”고 말했다.

○... 제23차 세계오순절대회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5개 주제 강연과 선택강의가 진행됐다. 특강에선 리더십, 청년·장년 사역, 어린이·청소년 사역,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사역, 교육방법, 성령사역, 신학교육, 세계선교 등을 다뤘다.

○... 세계오순절대회에 참석한 내빈들 중에는 탄스리 요셉 쿠루르프, 다토 세리 이드리스 잘라, 국무총리부서의 장관들, 말레이시아 감리교회의 웅 화이택 목사, 말레이시아 로마가톨릭교회 담임인 스리 머르피 니콜라스 제이비어 파키암 대주교, 세계복음주의 동맹 CEO이자 사무총장인 지오프 투니클리프 박사, 세계하나님의성회 회장,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감독,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 아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국교인 이슬람교가 60%이상 차지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말레이인을 상대로 포교나 전도활동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만큼 뿌리깊은 이슬람국가라 복음전파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교회 국제교회성장연구원(CGI) 이사인 갈보리교회 담임 프린스 구네라트남목사는 1978년 CGI창립 회원으로 가입하며 급속도로 부흥하게 됐다. 1968년 창립해 성도 100명 안팎이던 갈보리교회는 1만여 명으로 성장해 현재 쿠알라룸푸르와 케냐,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지에 총 31개의 지교회를 세웠다. 올해 4월 부킷잘릴에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교회인 갈보리 컨벤션 센터를 완성했다. 5000석 규모의 대성전과 다목적홀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5만6200㎡(약 1만7000평)규모다.

‘세계 효운동 4차원영성 총연합회’ 전진대회

총재 조용기 목사 “효의 기본은 기독교 신앙”



부모에 대한 공경인 ‘효(孝)’는 일반적으로 가정과 사회 운영의 기본 사상이자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성경적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사상과 신앙적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4차원의 영성을 접목해 세계에 효운동 전개는 물론 인류구원과 행복 실현을 구현하고자 설립된 ‘세계효운동 4차원영성 총연합회’가 조용기 목사를 총재로 지난 5월 발족됐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전진대회 및 서울지역 행복성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이영훈 목사(상임고문) 최성규(대표회장)목사 이태근(한국대표) 목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도들에게 효와 4차원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의 생각 꿈 믿음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효 운동을 실천할 때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성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 설교는 조용기 총재목사가 맡았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신 5:16)는 주제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부모는 육의 부모도 있지만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의미한다”며 성경적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효란 부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 마음에 기쁨과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십자가 없이 효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생각이 즐거워지면 행복이 다가오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며 효운동이 사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효 실천이 학교 폭력 해결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체험중심의 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이날 영상을 통해 “효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4차원 영성이 갖는 효운동이 사회 곳곳에 확산돼 사회가 더욱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